

HYUNDAI MOTORSTUDIO ART PROJECT

미래 인류 -
우리가 공유하는 행성

Future Humanity - Our Shared Planet

미래 인류 - 우리가 공유하는 행성

*“단 한번이라도 날아보았다면, 땅을 걷게 되어도 눈은 하늘로
가있으리라. 가본적이 있고 언젠가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곳으로.”*

- 레오나르도 다빈치

예술과 테크놀로지의 영감을 함께 받아 기획한 전시 <미래 인류 - 우리가 공유하는 행성>은 새로운 환경과 그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적 정치, 사회, 문화 기술적 현실을 상상한 전시다. 이를 위해 큐레이터 3인이 머리를 맞댔다. 각자 다른 국가, 문화,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미래의 인류라는 동일한 비전을 공유했다. 우리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부터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공동의 어떤 것이며, 이 전시를 통해 미래의 인류가 어떤 책임과 태도를 가져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이번 전시에서 말하는 공유는 단순히 공통된 영역을 구축하는 것이(유토피아적 비전) 아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기반으로 소수 집단, 공동체, 개인의 작은 메시지까지도 경청하고 주목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공유이다. 미래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상상력을 펼치는가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할 것이다. 단 한 사람의 거대한 상상이 아닌, 수많은 비전과 목소리가 함께 했을 때 의미 있는 미래가 열릴 것이다. 첨단 기계화와 자동화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적어도 우리 인간 스스로의 사고와 행동까지 자동적으로 알고리즘에 따라가 버리는 실수를 해서는 안된다. 어쩌면 그 즈음 되면, ‘인간다움’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이대형

아트디렉터, 현대자동차

ART DIRECTOR

HYUNDAI MOTOR COMPANY

인간 비행(飛行)의 꿈은 불과 한 세기 전까지만 해도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환상적인 모험이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도면처럼 창공의 매력은 마치 구름처럼 손에 쉽사리 잡히지 않았다. 불가능할 것만 같은 어떠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 한계의 극복과 확장은 인간의 본성일지도 모른다. 불가능이 뻔히 보이는 것이라도 최선을 다하여 부딪혀야만 고집이 풀리는 기질은 인간에게 매우 독보적인 존재감을 안겨주었다. 꿈에서부터 태어났지만 트라우마를 거쳐야만 하는 존재, 이 무슨 딜레마인가?

불가(不可)를 가(可)하게 하는 것은 필수성, 창의성, 그리고 적절한 도구 - 즉 테크놀로지가 필요하다. 글로 기록된 역사 이전부터 인류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이를 달성할 수 있었던 과정과 획기적인 도구와 기술, 이야기 또는 그림으로 전승한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시대마다 함께 진보한 주요 테크놀로지(기술)가 있었다. 그렇게 테크놀로지가 시대의 문화에서 꽃 피었듯이, 그 문화 또한 테크놀로지의 영향을 되받아 진화했다. 인간과 테크놀로지의 순환적 상호 구조가 지금까지 이어지며 시대가 발전했지만, 이제는 패러다임 전환의 서막을 마주하고 있다. 과거의 순환 속에서 테크놀로지와 인간, 기계와 사람은 매번 도구와 장인, 피사용자와 사용자라는 관계로 존재해왔지만, 지금 앞날은 경험하지 못했던 기계와 시스템과의 수평관계로 우리의 삶을 공유하게 될 조짐이 보인다. 고로, 여기서 부유하는 것은 ‘현재 급격한 재정의의 거치는 인간-기계 관계 진화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와, ‘인간의 입장에서 테크놀로지에서 무엇을 소망할 것인가’의 질문이다.

마틴 혼직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 감독
MARTIN HONZIK
ARS ELECTRONICA FESTIVAL DIRECTOR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문화 이데올로기적 혼란의 기저에는 우리의 인식적 틀/신념체계와 의미해석체계의 혼란이 자리잡고 있다고 본다. 테크놀로지를 통해 사회가 얻는 경제적 성장과 구조적 진화를 간과해서가 아니다. 유사 전례조차 없는 난제가 정치와 정책은 물론 대인관계적 소통과 기본 상식에까지 발발함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어찌 되었건 나의 주요 관심사는 테크놀로지가 인간의 신념체계와 의미해석체계를 어떤 방식으로 바꾸는지에 집중되어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앞으로 인간의 신앙과 영적인 품행에 어떠한 재구성을 이끌어낼지 관심 깊게 주시하고 있다. 소위 ‘미래 인류’의 시대 속에서 신과 영적 존재가 없다면 우리인간은 어떻게 그 의미를 찾아갈까?

테크놀로지에 의해 신과 영혼의 입지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면 우린 어디서 경이로움을 느낄까?

치우 즈지에
큐레이터 / 미디어 아티스트
QIU ZHIJIE
CURATOR AND MEDIA ARTIST



<미래 인류 - 우리가 공유하는 행성>은 현대자동차,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Ars Electronica), 북경 중앙미술학원 (中央美术学院) 간의 첫 합동 전시 프로젝트다. 테크놀로지가 진보하는 환경의 사회·문화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며 이와 연관된 19명 작가의 작품 25여 점을 서울, 북경, 모스크바 3개 지역의 현대 모터스튜디오에서 선보인다. 이 중에서 양아치, 이장원, 룬톤 3인의 작품 5점이 이번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에 전시된다.

‘미래 인류(Future Humanity)’에 대하여

이번 전시는 인간과 기계가 앞으로 맺게 될 관계, 문화와 테크놀로지의 역학관계, 전통·영성과 기계화·도식화 사이의 긴장 관계를 다룬다. 끊임없이 상상의 영역을 현실화하며 세상을 바꾸어 나가 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과학기술의 전능함을 빌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고, 그렇게 빌린 기술은 또 다른 발전을 촉진하며 미래 세계 속 우리의 문화와 사회를 빚어낸다.

그리고 ‘우리가 공유하는 행성 (Our Shared Planet)’

하지만 예전 관점에서 더 이상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가 온다. 지금까지 사용된 기술은 인간에 의해, 인간을 위해 개발되어 쓰였다. 그러나 앞으로 테크놀로지가 더는 인간의 편 리 함을 돕는 도구가 아닌 하나의 독립 개체로서의 동반자, 파트너, 동료로 재발견된다면 어떨까? 이러한 테크놀로지의 결과물은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무엇을 지향하고 제어할까? 더 이상 도구가 아니라면 그들은 어떠한 역할에 안착하게 될까? 그리고 도구의 일방적인 사용자였던 우리의 역할 또한 재정의 될까? 새로운 장을 넘긴 기계는 문화영역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

현대 모터스튜디오에서 열리는 작가와의 만남

전시는 미래 사회에 대한 여러 의문점에 대해 생각해보고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연계 이벤트를 진행한다. 현대 모터스튜디오는 실험정신을 기반하는 공간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가, 엔지니어, 디자이너가 한데 모여 자신의 비전을 제시하는 장소로 활용된다. 아시아 대륙을 중심으로 흠어진 3 개의 현대 모터스튜디오는 미래를 그리는 이동성, 에너지, 지속가능성을 고민 하고 토론할 강단이자 무대로서 미래 사회의 우리의 삶에 대해 논의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자유로운 소통의 장이 될 것이다.

세 명의 큐레이터 - 세 가지 문화 - 세 가지 관점

이번 전시는 큐레이터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 디렉터 마틴 혼직(Martin Honzik), 중국 중앙미술학원의 교수이자 2017 베니스비엔날레 중국관 예술감독인 치우 즈지에(Qiu Zhijie), 2017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예술감독이자 현대자동차 아트 디렉터 이대형의 공동 큐레이션으로, 서로 다른 지역의 문화적 배경을 가진 3명의 큐레이터들이 각기 다른 시각을 통해 미래 사회에 대한 비전을 풀어낸다.



양아치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미디어아트 전공을 한 양아치는 미디어를 통해 시각적 소통을 시도하는 작가로 미디어의 속성과 그 파급 원리같이 미디어의 본질을 연구해왔다. 작가는 이야기를 수집하고 이야기 속의 장면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미디어 소재를 활용하여 시각화하는데, 사진, 설치, 글 등 다양한 매체와 언어를 통해 자기성찰적이고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살아가는 현실과 경험을 확장하고 이를 한국 사회의 시대상으로 담아 독특한 작품을 자유롭게 선보이고 있는 그는 미디어 사회를 모색하는 실험으로부터 출발한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미디어의 새로운 언어를 개발하는 작업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전시뿐 아니라 음악, 무용,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자신의 조형 언어를 활발히 실현하고 구축하고 있다. 국내외 개인전과 다수의 기획전에 참여하였으며, 그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아모레퍼시픽 등에서 소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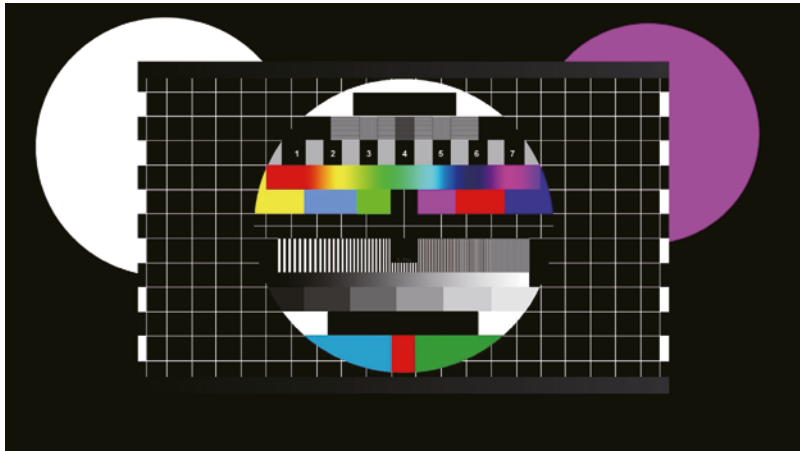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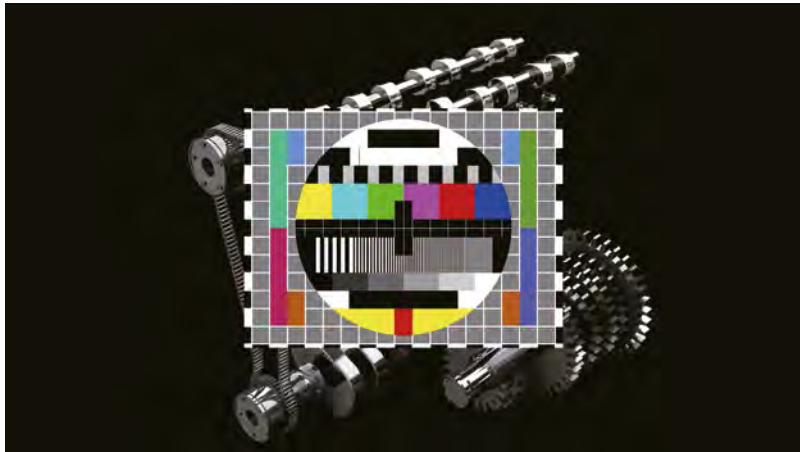
나는 1956년 사무실로 출근한다. 1956년 사무실에서 1966년 이전 1976년, 1980년, 1986년을 발명하고 2010년 사무실에서 퇴근한다. 기차를 타고 1980년이라는 역에서 내린 후, 2012년 모텔에서 창 밖을 바라본다.

멀티채널비디오, 10분 35초, 13분 44초, 2015

<나는 1956년 사무실로 출근한다. 1956년 사무실에서 1966년 이전 1976년, 1980년, 1986년을 발명하고 2010년 사무실에서 퇴근한다. 기차를 타고 1980년이라는 역에서 내린 후, 2012년 모텔에서 창밖을 바라본다>는 스크린, 해상도, 이미지,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순차적으로 전개한 시리즈 작업물로 작가는 그가 살아가는 현실과 경험의 확장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의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바라보게 한다.

스크린, JODK, 공중, 시간표, 광고 후 계속됩니다, 빛, 별들의 고향, 새로운 약을 써보세요, 허니 버터, 폭력서클, 다이어트나 운동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처음입니다, 평화의 댐, 채널 고정하세요, 더티 댄싱, 프로젝션, 일 촉족발의 남북한, 급변하는 동북아, 한반도가 가야 할 길은? 아직 선택을 못하셨나요, 새로운 모드, 콜드하드캐시, 투시도, 지정학적 환상은 그래서 더욱더 강력한 것이 된다, 윤심덕은 자살하지 않았다, 미리 맛 보는 매혹적인 지중해 신 메뉴, 해치워, 트윗, 수지 왕의 세계 The World of Suzie Wong, 국민 여동생, 심리적인 이웃, 디스플레이, Y2K 세기말 공포, 유리, 초국적 Transnational, 밈고 부르는 카카오 택시, 모던한 것 그러나 진정으로 모던한 것들, 오늘 밤 쇼에서는, 킹콩, 글로벌 미디어, 모든 비니 베이비들을 모아보세요, 그래, 어떤 빛은 스크린으로 향한다, 스크린의 빛은 카메라로 향한다, 카메라는 스크린으로 향한다, 스크린의 빛은 눈으로 향한다, 벌크 업, 파노라마, 한인 천 재소녀, 골든 타임, 심경고백, 윈도우, 우리강 아지 먹는 것도 남달라, 녹색 창, 녹색 거실, 청색 방, 청색 화장실, 황금 부엌, 녹색 정원, 무료 평가판, 이번 주 로또 번호에서는, 초매체성 Transmedialite, 아시안 핏 Asian Fit, 코리안 핏 Korean Fit,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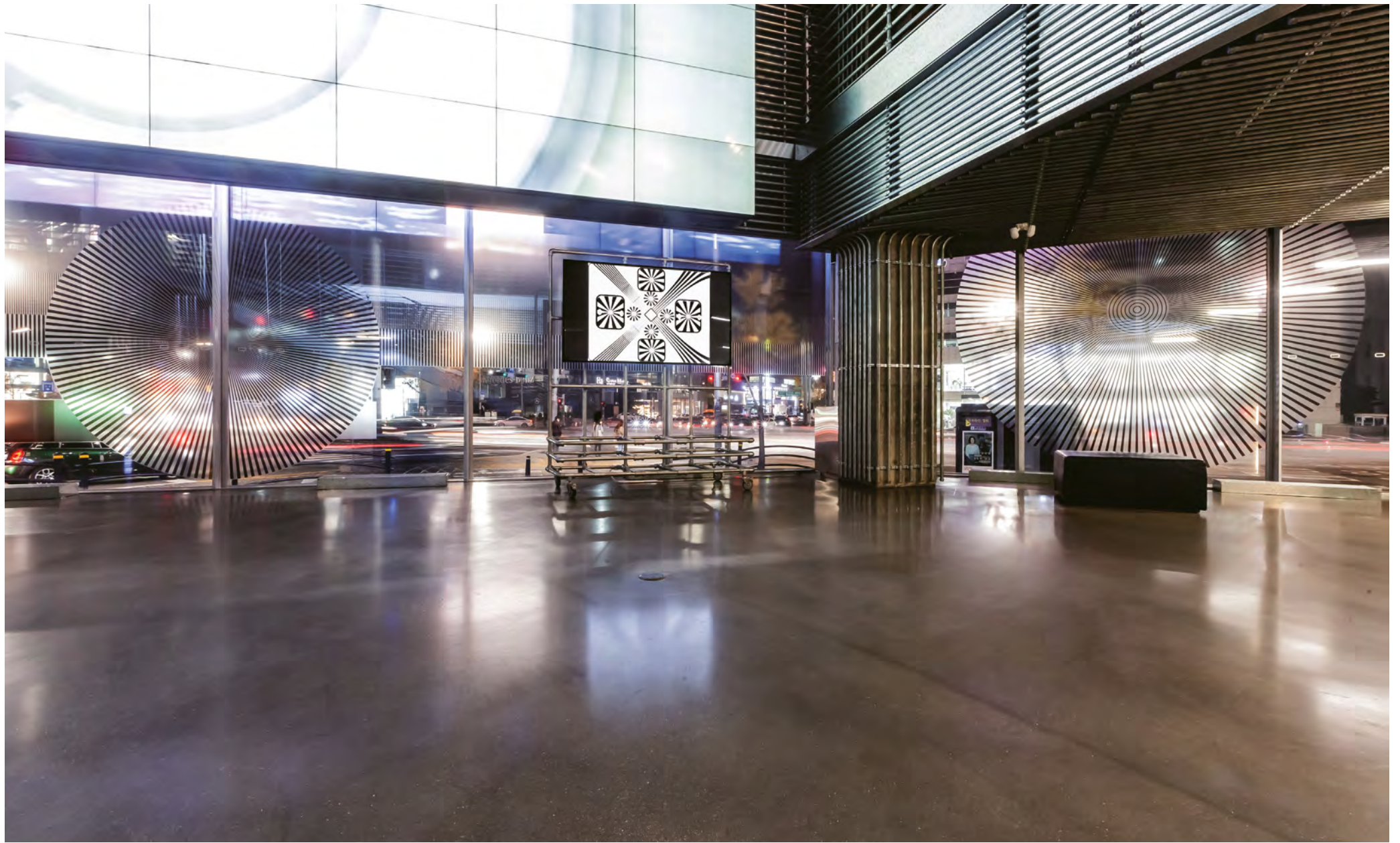
스크린, 스크린, 스크린

설치, 유리에 바이닐 필름, 2018

<Screen, Screen, Screen>은 새로운 스크린을 상상하는 시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전의 3G, 4G, 5G 시대를 상징하는 미디어 환경을 통해 실 새 없이 각종 이슈를 뱉어내는 스크린을 인정하고, 모든 객석을 불태우는 것이다. 이는 외부 세계로 나서기 위한 빛나는 동굴의 입구이자 출구로서 미디어 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시공간에 집중하며, 그 이면에 존재하는 사회적 변혁을 다수의 스크린에 등장시킨다.

- 본 작품은 GRAYOVAL 김도형 디자이너와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장원

서울대 조소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이장원은 과학적 지식과 동시대 기술들을 통해 자연의 구조와 본질을 형이상학적 태도로 풀어내는 작가이다. 태양의 존재에 관한 사유와 그것이 창출한 리듬에 관한 작품들이 좋은 예시라 할 수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운영하는 고양창작스튜디오, 헬싱키의 HIAP, 서울시립미술관의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에 참여하였으며, 한국 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며 예술과 과학의 융합을 시도하였다. 이런 그의 실천은 자연을 매개로 예술적 태도와 과학적 기술의 교류를 피력한다.



윌슨 (Wil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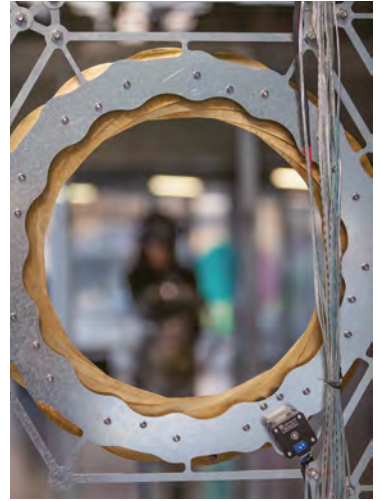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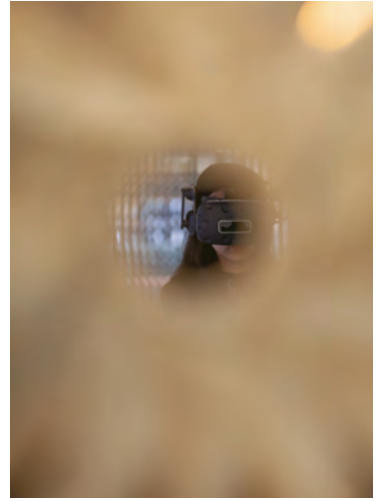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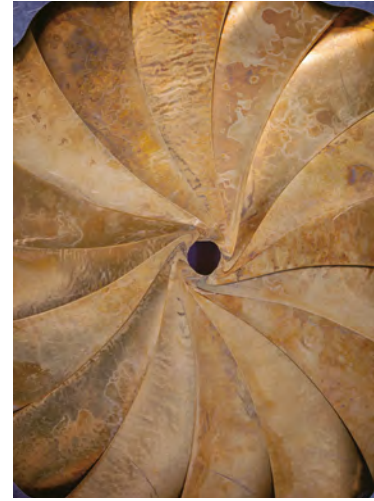
설치, 황동, 아연 도금 강판, 전자 장치, 제작한 소프트웨어, 가변크기
(높이 3800),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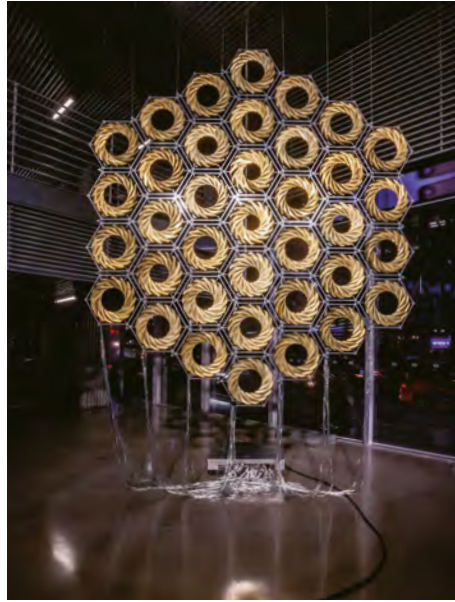
OS가 진화를 거듭하여 특정한 형태로 수렴된 미래의 모습은 어떠할까. 작가는 태양을 떠올린다. 따뜻하고 공평하며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인 태양은 오랜 시간 인간과 자연을 연결하고 생명과 질서의 리듬을 조율하며 OS처럼 우리 기저에 존재해왔다. <Wilson>은 인격화된 OS로서의 태양을 연출한다. 자연의 대척점처럼 느껴지는 테크놀로지로 구축된 OS이지만, 궁극적으로 진화된 모습은 오히려 자연을 닮아 있으리란 생각이 담겨있다. 지극히 물질적인 모습으로 공간을 점유하는 원형의 오브제는 우주에 존재하는 태양의 실체를 데이터 기반의 모션 기법을 통해 시각화되었다. 동시에 VR을 통해 근미래의 OS 환경을 체험하는 관객과의 조우를 시도하며 가상과 실체가 섞인 풍경을 연출한다.

- 본 작품은 현대자동차그룹의 혁신플랫폼 ZER01NE과 실무부서와의 협업 프로젝트 <빅데이터 그래서 의식주>의 일부로 제작되었습니다.

주최: ZER01NE

후원: 현대자동차그룹







룸톤

룸톤(RoomTONE)은 미디어 아트와 게임을 VR로 구현하는 아티스트팀이다. 이들은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의 경험을 제안하며, 가상 공간과 실제 공간에서 교차하는 감각들을 설계한다. 더불어 실험적 연출과 내러티브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 그들만의 표현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OS

가상현실 & 비디오 설치, 5분,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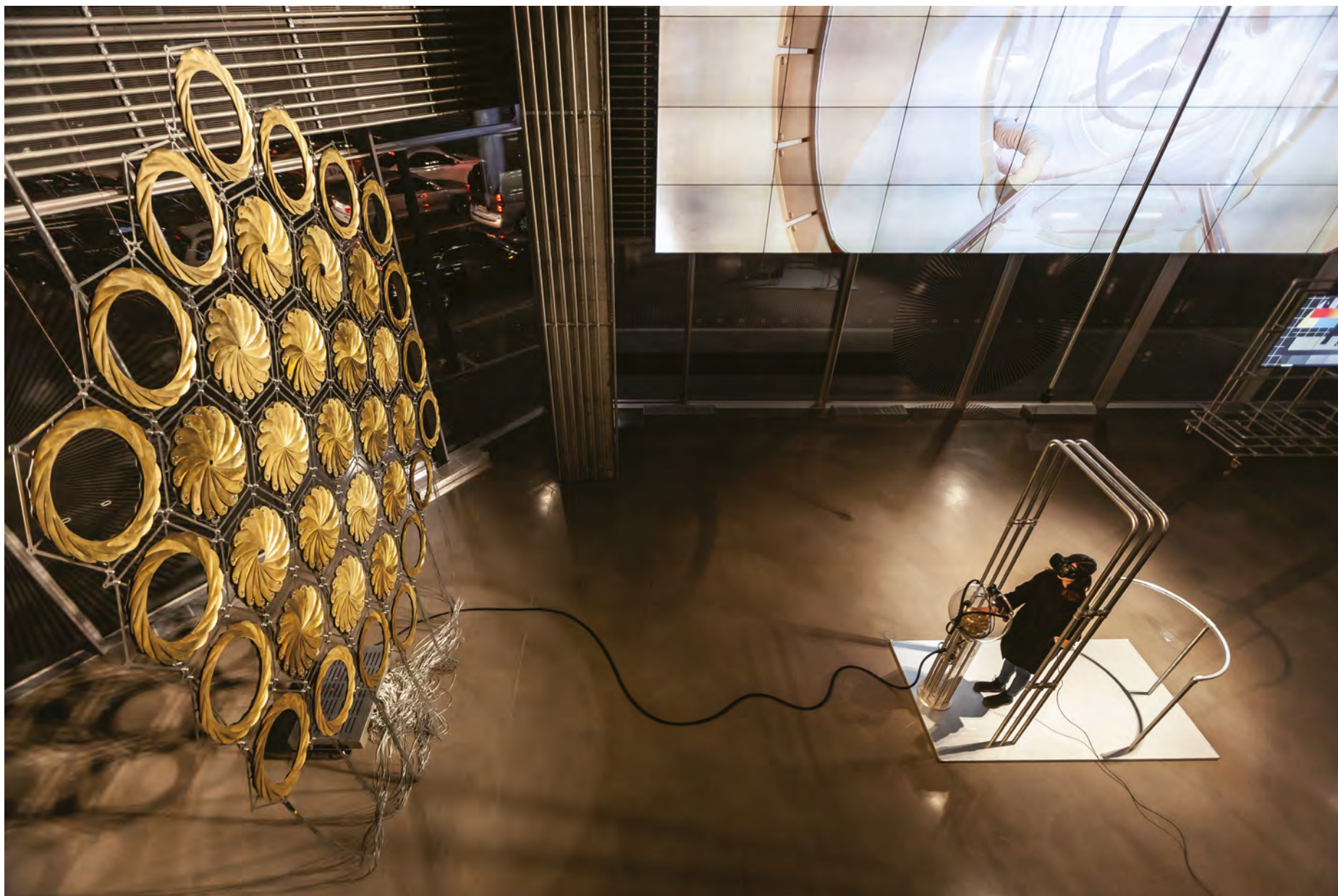
<OS>는 근미래의 자율 주행 환경을 상정한 가상 OS의 이미지를 담은 VR 작품이다. 관객은 가상의 공간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빛과 데이터를 따라 실제와 가상의 경계로 다다른다. OS는 원형의 빛으로 묘사되며, 관객이 직접 빛에 다가서며 접촉하는 물리적 행위를 통해 가상과 실제의 경계를 흐리고 인간과 OS 사이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 본 작품은 현대자동차그룹의 혁신플랫폼 ZER01NE과 실무부서와의 협업 프로젝트 <빅데이터 그래서 의식주>의 일부로 제작되었습니다.

주최: ZER01NE

후원: 현대자동차그룹





Depth of Circle

비디오, 10분, 가변크기, 2018

<Depth of Circle>은 생명과 처음 마주하는 상황을 우주비행사가 새로운 행성을 발견하는 장면
에 빗대어 재구성한 VR 작품의 스크린 버전이다. 영상은 우주를 배경으로 한 세포 분열과 원형의
이미지를 통하여 거시적인 우주와 미시적인 개인의 생명이 서로 맞닿아 있음을 시사한다.



